

먹거리가 오염되고 있다 ①



김연순

1 자식물 오염

무릇 생명이 있는 먹거리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벌레도 생기고 부패해야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요즘 쌀이나 밀가루에서 벌레를 구경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99%를 수입에 의존하는 밀은 10년이 지나도 벌레가 생기지 않는다니 과연 그런 것을 먹어도 아무런 해가 없을까. 어떤 농약은 몸 밖으로 배출되지 않는다니 어린이의 작은 몸에 계속 쌓일 것을 생각하면 정말 섬뜩한 노릇이다.

농약의 피해는 농민의 농약중독과 소비자의 피해도 문제이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토의 황폐화이다. 농약을 계속해서 사용하면 땅은 산성화되어 죽은 땅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단위면적당 농약 사용량은 세계 1·2위에 이르고 있으니 사토화(死土化)된 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농작물에 살포되는 농약과 사용횟

수를 살펴보자.

주식인 벼는 모판에서 2번, 모내기 뒤에 제초제, 살충·살균제 등을 6번, 이삭이 나온 후에는 밀구약, 마지막으로 목도열병 예방약을 뿌린다. 4월~9월까지 총 27회 살포한다.

참외, 사과, 토마토 등의 과일에는 12회~20회까지 친다. 심지어 사과의 경우 일등품 사과를 만들려면 꼭지에서 농약이 마르면 안된다고 하며 38회나 뿌린 경우도 있다는 공해문제연구소의 보고도 있다.

오이는 자라면서 구부러져야 정상인데도 곧고 길게 뻗은 오이만 찾는 소비자의 기호에 맞춰 성장점에 농약을 치고 비바람에 씻기지 말라고 그위에 다시 전착제까지 덧칠하여 7차례나 농약이 살포된다. 벌레가 많이 생기는 고추는 20여차례, 맥주의 원료인 호프에는 18회 정도 뿌려지고 있다.

그러나 더욱 심각한 문제는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이다. 해마다 몇차례씩 신문지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미국산 자몽, 옥수수, 호주산 밀, 중국산 고사리, 그리고 얼마전 뉴질랜드의 홍합에 이르기까지 기준치의 수십배를 초과하는 수입식품들은 운송과정에서 부패되지 않도록 다량의 농약을 살포하고 방사선 처리까지 하고 있다.

수입식품의 절반 가량이 통관되는 부산 검역소의 경우 91년 전체 수입량 중 61%가 서류·관능검사로만 통관되었으며 92년 3월 현재 보사부의 검역소 직원 335명 중 전문 이화학검사 요원은 44명에 불과하다. 1명의 전문요원이 1일 856건의 샘플에서 잔류농약, 항생·항균제, 성장호르몬제, 중금속 함유 여부 등을 조사해야 할 형편이니 국민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검역 자체가 이토록 허술한 상태이다.

그러면 국내 시장점유율이 높은 수입농

산물 중 특히 해로운 몇가지를 살펴보자.

1. 오렌지 농축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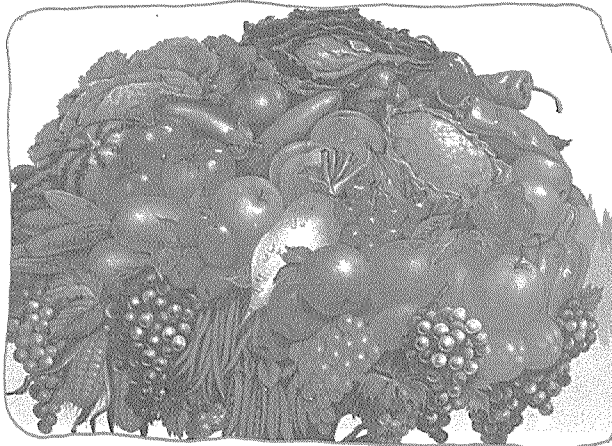
캘리포니아와 플로리다에서 싱싱하게 자라는 오렌지로 만든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2-4D라는 제초제가 사용된다. 유전자 변이를 일으켜 2세에게도 치명적이라는 사실은 월남전 이후 기형아 출산률이 높은데서 그 위험을 알 수 있다.

2. 밀

마라치온, 파라치온, 프롬알데히드, 펠단 등 무려 20여종의 농약을 치는데, 바구미를 잡아 넣고 1주일 후 살펴보았더니 모두 죽었다는 실험결과도 있다. 우리가 쉽게 접하는 빵, 과자, 라면, 국수 등은 모두 이 수입밀로 만든 것이다.

3. 쇠고기

성장촉진제와 항생제를 대량 사용하는 데 이것은 세포벽을 용해시키고 갑상선 이상을 일으키며 7, 8세 이전의 유방 이상발육과 생리 등 성 조숙증 환자가 늘고 있다



무분별하게 밀려오는 수입농산물에도 다량의 농약과 방사선이 뿌려져 있어 우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다.



곧게 뻗은
오이 대신
구부러진 오이를,
윤기나는
사과 대신
벌레먹은 사과를
기꺼이 집어드는
현명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는 사실이 발표된 바 있다.

4. 콩

살충제인 파라치온이 쓰이는데 발암물질을 지목되어 있고 이것은 콩나물, 간장, 두부의 원료로 쓰인다.

그밖에도 바나나, 토마토 케첩의 원료인 페이스트, 마른 파, 고사리 등에는 간종양, 임파종, 염색체 이상을 일으키는 맹독성 농약을 뿌리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금지된 농약이 다량 검출되는 예가 허다하다. 또한 다행히 발견된다 하더라도 이미 시중에 유통된 것을 제대로 수거했는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그렇다면 이제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계절식품의 이용이다. 계절이 아닌 농작물은 그만큼 농약과 비료를 더 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계절 먹거리를 애용해야 한다. 제철에 나는 야채

와 과일은 다음과 같다.

생 취나물은 3월~6월, 오이와 부추는 5월~11월, 느타리버섯은 1월~4월, 가지·호박은 5월~8월, 양파는 5월~12월, 옥수수수는 7·8월, 열加里·열무·알타리는 5월~8월, 고구마는 11·12월, 늙은 호박은 10·11월이다. 과일 중 딸기는 2~5월, 토마토는 6·7월, 참외·수박은 7·8월, 청포도·거봉포도는 8·9월, 꼬마토마토는 9월~11월, 사과·배는 9월~2월, 귤은 12월~2월이다.

두번째로 농산물 구입시 선택의 기준을 바꾸어야 한다. 곧게 뻗은 오이 대신 구부러진 오이를, 둥글고 반들반들 윤나는 사과 대신 벌레먹은 사과를 기꺼이 집어드는 현명함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못생기고 불쌍사나운 농산물이 잘 팔린다면 생산자는 자신들의 몸에도 치명적인 농약을 굳이 더 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세계, 수입식품의 철저한 검역을 요구하고 원산지 표기를 반드시 하도록 정부에 촉구하는 일이다. 현재 정부에서는 93년 7

“
 값싼 밀의 대량 수입으로
 국내 밀이 사라진지 수십년만에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벌어져, 우리 밀로
 만든 빵, 국수 등이 상품화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쌀 지키기 운동도 결코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

월에 농산물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를 시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이것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가공식품 원료의 원산지 표시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네째, 우리농산물 최후의 보루인 쌀 지키기운동의 일환으로 언론사와 미 대사관에 항의 전화 및 독자투고하는 일도 있다. 정부가 97년까지 쌀을 포함한 전 농산물 개방을 약속했다고는 하나 89년 잠시 흑자국이었을 때의 일이고 90년 이후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쌀을 개방할 원인은 소멸된 것이다.

만약 쌀마저 개방된다면 쌀값에 대량으로 밀려 들어오는 수입쌀은 우리 농가를 순식간에 무너뜨릴 것은 뻔한 일이다. 농촌이 와해되면 이농현상은 더 심화되고 이것은 다시 도시의 주택문제, 교통문제, 교

육문제를 가중시킨다. 이제 소비자는 농민을 위해 농촌을 지킨다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바로 자신을 위해 농촌을 살려야만 하는 것이다.

값싼 미국산 밀의 대량수입으로 국내 밀 농가가 사라진지 수십년만에 우리 밀 살리기 운동이 벌어져 이제 다시 우리 밀이 선보이고 있다. 우리 밀로 만든 빵과 국수, 수제비까지 상품화되어 공급되고 있으니 우리 쌀 지키기 운동도 그리 비관적인 것만은 아니다.

모든 국민이 관심을 갖고 쌀 수입에 절대 반대한다는 항의 편지와 전화를 언론사와 미 대사관에 계속하여 우리 국민의 쌀 개방 저지에 대한 굳은 의지를 보여야겠다.

<필자=여성민우회 노원·도봉지회 회원>

•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

갓진희생 빛난공은 김이세겨 나라사랑

• 한국건강관리협회 •